

# “시진핑 경제 책임론 의식 공직자 충성 압박”

### WSJ 동향 보도...관리들 태만·무능력 비난하며 이견 봉쇄 부채감축·성장 딜레마 봉착...전인대는 ‘권위 이상설’ 시험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 관리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1월 말 중국 전역에서 고위 관리들을 중앙당교 세미나에 불러모아 경제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타박했다. 시 주석은 관리들이 정신적으로 태만하고 무능력하다고 비판한 뒤 경제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중국에는 공산당 위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단결과 조화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공산당 지령을 무더기로 하달했다. 지난주에는 중국 관영매체가 시 주석을 제외한 공산당 지도부 전원이 시 주석의 견해에 대한 자체평가를 제출했다. WSJ은 이런 자체 평가서 시 주석을 공격적 권위를 지닌 인물로 묘사하기 위해 고안된 의례라고 해석했다. 공직자들에게 대한 시 주석의 견해는 중국 경제의 난항, 그에 대한 내부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시 주석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은 그의 정책 때문에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불필요하게 악화했으며 많은 외국 정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시 주석이 통제를 계속 강화하고 이견을 지닌 관리들을 징벌하겠다고 위협함에 따라 정책이 형클어지고 관가에 혼란이 싹튼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시보의 부편집장을 지낸 당위원은 시 주석이 경제 부진, 관리들의 저항과 싸우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위원은 “시

주석의 관점에서 보면, 시 주석은 자기 정책이 옳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홍콩에 있는 컨설팅업체 오리엔탈캐피탈리서치의 이사인 앤드루 폴리어는 “중국 이 경제 난제를 통제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시 주석이 경제보다 정치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면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 부진은 일부 시 주석의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기업·지방정부 부채의 증가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금융 부문 리스크를 억제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뒀다. 그러나 대출을 옥죄어가는 경제 전반으로 파제가 글로벌 경기 부진과 맞물려 많은 중국 기업들이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기를 떠받치려고 유동성 공급을 다시 늘리고 더 많은 기간시

설 건립을 승인하며 은행들에 민간 중소기업 대출을 독려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경제학자인 조지 매그너스는 “부채감축, 리스크 완화와 고성장을 지속하는 것은 병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모순이 중대 문제이고 불신을 부추길 중요한 요소인 게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경제 부진과 책임론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시 주석의 권위는 오는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WSJ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의 시작을 알리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전국위원회 회의(13기 2차)가 지난 3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가운데)과 리커창 총리(오른쪽 세번째),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왼쪽 세번째) 등이 앞줄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 〈171〉 무종

무종(武宗, 814~846)의 이름은 이점이다. 목종의 다섯째 아들로 목종의 아들이다. 변진과의 전쟁과 강력한 불교 억압 정책을 폈다.

무종은 839년 형 경종의 여섯째 아들 진영을 건의했다. 그러나 환관 구사랑과 어흥지는 태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목종의 다섯째 아들 영왕 전을 황태자로 추대했다. 영왕이 즉위하니 무종이다.

무종은 즉위 당시 27세의 청년으로 성격이 호방했다. 즉위에 비협조적이었던 재상 양사복, 이각을 좌천시켰다. 환관 유흥일, 설계룡을 주살하였다. 회남절도사 이덕유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이덕유는 세가지 국정 철학을 상주했다. 군신의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구분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승유,

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구나”라고 탄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덕유는 반대파인 양사복, 이각을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주청한 적이 있다. 그의 개인적 인품을 보여주는 일화다.

불교 탄압이야말로 최대 사건이었다. 역사상 회창법난(會昌法難)으로 불린다. 842년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계율을 어긴 승려의 도첩을 취소하고 환속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이해에 장안에서만 환속 처분을 받은 승려가 3459명이나 되었다. 사찰에 대한 정비에 나서 4600개 사원과 초제난약(招提蘭若)이라 불리는 작은 사원 4만개를 폐지했다. 승려 26만명이 환속되었다. 노비 15만명도 해방시켰다. 사찰 소유의 장원은 몰수되고 불상과 불구는 동전과 농구의 재료로 사용했다. 수도 장안과 낙양에 4개, 각 주마다 하나씩 사원을 허용했다. 장안에는 자은사, 천복

### 즉위 5년간 불교사원 4만여개 없애

이종민 일파를 봉당의 집단으로 간주해 내렸다. 중서성(中書省) 중심의 국정 운영을 건의했다. 직업 관료 중심의 운영으로 영향력이 커진 환관 세력을 견제하였다. 실제 환관 구사랑이 은퇴를 선언했다. 재상의 임기 제한도 건의했다. 그러나 본인이 장기간 재직해의 미가 퇴색했다.

사, 서명사, 장암사만이 남았다. 불교 뿐만 아니라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의 경교도 처분을 받아 2000여명이 환속되었다.

846년 연호를 회창으로 바꿨다. 변경에 불안한 기운이 있었다. 북방의 회흘이 당에 귀순할 의사를 전하였다. 이덕유의 건의에 따라 귀순한 부대를 귀의군으로 임명해 변경의 안정을 도모했다. 하북 변진의 동향을 파악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데 노력했다. 특히 소의진의 동향에 주목했다. 절도사 유충간이 임종을 맞이하자 자신의 조카 유진을 유후로 임명해 승계토록 했다. 조정과 상의 없이 취한 일방적 조치였다. 결국 소의진 정벌을 결정했다. 조정의 단호한 의지에 놀라 844년 조정에 귀순하기로 결정했다.

불교계의 타락이 탄압의 일차 요인이었다. 국가재정 문제와도 관련이 깊다. 양영의 건의에 따라 양세법(兩稅法)을 실시했는데 납세자 부족으로 세 수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환속한 26만명의 승려가 납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큰 도움이 되었다. 15만명의 노비와 국가에 귀속된 토지도 국가세입 확충에 기여했다. 무종이 죽자 복불령(復佛令)이 내려졌고 도사 조귀진은 사형에 처해졌다. 도사가 탄압을 면한 것은 무종이 열특히 소의진의 동향에 주목했다. 절도사 유충간이 임종을 맞이하자 자신의 조카 유진을 유후로 임명해 승계토록 했다. 조정과 상의 없이 취한 일방적 조치였다. 결국 소의진 정벌을 결정했다. 조정의 단호한 의지에 놀라 844년 조정에 귀순하기로 결정했다.

무종 시기에 우이(牛李) 정쟁이 더욱 격화되었다. 명문가 출신의 이덕유, 명문가 출신의 이덕유, 이종민, 이각 등은 몰과 기를 과 같은 사이였다. 양 세력의 소모적 정쟁으로 조정은 활력을 잃어갔다. 문종은 일찍이 “하북의 변진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들 봉당을 없애는

황제의 명을 단축했다.

### 김정은 다녀간 베트남, 北 관광 활성화 움직임

#### 여행사들 마케팅 경쟁 시작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개선되면서 베트남에서 북한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간 푸오이찌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더 개선돼 북한을 방문하는 베트남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지난 1~2일 베트남을 공식 친선 방문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55년

만에 베트남을 찾은 김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공식친선방문’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국빈 방문과 같은 수준이라고 베트남 당국은 설명했다.

2017년 2월 북한의 사주로 베트남 국적자인 도안 티 흐영(31) 씨가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 위원장의 이복형제인 김경남을 암살한 혐의의 체포된 사건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현지 여행사 ‘리엔 방 트래블링’의 푸꾸이 타인 대표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베트남 관계가 좋아져 더 많은 베트남 관광객이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트럼프 “코언이 회답장서 나오게 하는데 기여”

#### 북미회담 기간 청문회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정계를 강타한 마이클 코언 전 변호사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와 관련해 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내가) 걸어나오게 하는데 기여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코언을 가리켜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데에는 코언 청문회도 한 원인이 됐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북한과의 아주 중요한 핵 정상회담과 동시에 공개 청

문회를 열어, 유죄를 선고받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인 코언을 인터뷰함으로써 미국 정치에서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며 “이것이 (내가) 걸어나오는 것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없었다”며 “창피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안으로부터 떠나야 했다”, “걸어나와야 했다”며 ‘walk’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27~28일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과 동시에 열린 코언 청문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표출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연합뉴스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흙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